'포천메나리' 발굴자에 감사패 전달

포천메나리보존회와 포천예총 회원의 뜻모아

포천메나리보존회(회장 류태균)와 포천예총(회장 이희용)은 10월20일 흥사단 인천시지회 사무실에서 포천메나리 발굴채록자인 김순제 전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에게 두 단체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와 포천특산물을 전달했다.

김순제 교수는 1982년에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지역에서 전래되어 오던 농요를 10여년간의 고증을 거쳐 발굴, 채록하여 '포천메나리'라고 이름지었다.

그 후 포천메나리는 작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00년8월21일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를 전승지역으로 민속악으로 구분되어 경기도무형문화재 제35호로 인정받았다.

또한 91년 경기도민속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92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비롯한 수많은 수상을 거듭하여 최근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각종 공연과 행사에 초청되어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방송과 행사에 초청되어온 포천메나리 회원들은 발굴하신 김순제 교수를 더 늦기 전에 찾아뵙고 그 고마움 마음을 전달해야한다고 예총 임·회원 위촉패 수여식 자리에서 언급되어 이날 모든 회원의 이름으로 전달식을 갖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메나리는 산메나리에서 시작되었고 메나리라는 이름은 '메아리'에 그 어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포천은 그 환경적으로 산과 논의 고른 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보존에 힘쓰고 있는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순제 교수가 발굴한 '포천메나리'는 힘차면서 구성지고 가락이 흥겨운 독특한 창법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메나리'가 소리꾼이 선창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후렴을 하는 선후창의 형식이나 '포천메나리'는 특색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리를 매기는 사람, 지르는 사람, 받는 사람, 내는 사람, 맺는 사람 등 노동에 참가하는 인원을 5부분으로 나누어 부름으로써 하나의 소리를 완성시킨 소중한 포천의 문화유산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영재 경기도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류태균 포천메나리 보존회장, 이희용 포천예총회장, 이창해 포천메나리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메나리보존회와 포천예총은 10월20일 흥사단 인천시지회 사무실에서 포천메나리 발굴채록자인 김순제 전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에게 두 단체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와 포천특산물을 전달했다.(사진은 왼쪽부터 포천메나리 이영재 보유자, 김순제 교수, 류태균 포천메나리 보존회장, 이희용 포천예총회장)

영평팔경가의 노래 公演

경기소리보존회, 11월3일 오후5시 포천반월아트홀

(사)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지부장 박영실)는 11월3일 오후5시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얼씨구 좋다! 포천별곡 영평팔경가' 공연무대를 마련한다.

이번 공연은 포천시, 포천시의회, 경기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포천문화원, 포천예총, 포천신문사가 후원해 마련된다.

이번 무대는 지난해 영평팔경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경기민요소리극 영평팔경가를 선보인 것을 바탕으로 소리 위주의 공연을 하게 된다.

한편, 이번 공연은 박순 선생의 시를 창작한 소리에 맞춰 부르는 공연으로 70여명이 참가하며 송우초등학교 학생 20명과 포천중·일고등학교 학생 10여명이 특별출연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80

나를 잊지 않은 이가 너를 돌보아주리라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송순이 이조참판으로 있을 때, 그는 찬성 허자(許磁)와 합심하여 조정에 어진 이를 천거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권신들의 미움을 사 5년 동안이나 유배당하였다. 이후 그는 항상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어느 날 그의 친척 중 한사람이 울분을 토해내며 말했다.

"지방 출신으로 재상이 된 사람 치고 벼슬을 마친 후 서소문으로 나오는 사람만 보았지 남대문으로 나오는 이는 보지 못하였다."

이는 대개 도성에 와서 벼슬을 하는 이는 죽을 때까지 도성을 떠나지 않으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당시 지방 출신의 정승들은 서소문 근처에 많이 살고 있었다.

그 후 송순은 개성유수(開城留守)를 사직하고 시골로 내려가려 하였다. 그때 그 친척이 강가에 나와 전송하였다. 송순은 서로 술잔을 나누며 그에게 말했다.

"보셨지요? 나는 지금 남대문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지방에는 향안(鄕案)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는 친가와 외가 모두 선비 집안 출신들만 가려 따로 이름을 기록한 것이었다. 외가나 아내가 다른 고을에서 왔거나 대단한 양반 가문 출신이 아니면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향안에 기록될 수 없었다. 때문에 웬만한 벼슬을 얻는 것 보다 향안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였다.

송순이 대사헌으로 있을 때였다. 그의 고향은 전라도 담양이고 외가는 남원이었다. 하지만 가까운 조상이나 친척 중에 크게 성공하여 큰 벼슬에 오른 사람이 없었다. 따라서 그는 비록 높은 벼슬에 있었지만 향안에 기록될 수 없는 처지였다.

그가 휴가를 얻어 고향에 성묘를 하러 왔는데, 고을의 선비들이 향청(鄕廳)에 모여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즉시 음식을 성대히 차려 수십 명의 집꾼에게 들려 향청에 보냈다. 그러고는 그 고을의 어른에게 말했다.

"대사헌이 음식을 보내 고을의 어른과 선비들에게 대접하려 하는데 이를 거절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고을 어른들이 모두 옳다고 여겼다. 고을 어른들이 음식을 먹고 나자 한 노인이 말했다.

"주인을 불러 우리와 합석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소?"

향청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모두들 좋다고 하였다. 향청에 모인 사람들이 이윽고 송순에게 사람들을 보내 청했으나 송순은 일부러 나오지 않았다.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부른 다음에야 송순은 못이기는 척 향청에 나왔다.

송순이 향청에 나와 좌우를 둘러보니 늙은 선비들 중에 자신과 동갑이면서 생일이 약간 빠른 자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공손한 표정으로 그 늙은 선비가 앉아 있는 다음 자리에 가서 앉았다. 이는 고을의 선비들을 각별히 예우한다는 표시였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어른들이 송순을 향해 말했다.

"대사헌이 이미 모임에 참석하였으니 향안에 올리지 않을 수 없소이다."

이윽고 고을의 어른들이 향안을 가져다가 송순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송순(宋純)

1493년(성종 24)~1582년(선조 15).

본관은 신평(新平)이며 자는 수초(遂初) 또는 성지(誠之). 호는 기촌(企村) 또는 면앙정이다. 1519년(중종 14) 별시문과에 급제한 후 승문원 권지부정자를 거쳐 사간원 정언이 되었다.

1533년 김안로가 권세를 잡자, 귀향하여 면앙정을 짓고 시를 읊으며 지냈다. 1537년 김안로가 사사된 뒤 홍문관에 들어가 부제학을 역임하고, 경상도 관찰사와 사간원 대사간 등을 지냈다. 1550년 대사헌과 이조참판이 되었으나, 대윤 세력에 의해 서천으로 귀양갔다. 이듬해에 풀려나 1552년 선산도호부사가 되고, 전주부윤과 나주목사를 거쳐 한성판윤·우참찬을 지낸 후 은퇴하였다.

그가 지은 면앙정에는 임제, 김인후, 고경명, 임억령, 박순, 이황, 소세양, 윤두수, 양산보, 노진 등 많은 인사들이 출입하며 시 짓기를 즐겼는데, 조선 시가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음악이야기 #30

1930년대 뮤지컬- 디즈니 뮤지컬 애니메이션의 탄생

윤우영 (대진대 교수, 연출가)

1930년대 뮤지컬의 인기는 월트 디즈니(Walt Disney, 1901~1966)로 하여금 뮤지컬에 눈을 뜨게 해주었다. 1934년 애니메이션 전문가들을 모으면서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작품이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였다. 이 애니메이션 필름은 첫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로 기록되고 있으며 테크니컬러를 사용했고 또한 처음으로 뮤지컬 형식을 시도한 작품이었다. 1937년 12월에 시연을 거쳐 1938년 2월에 개봉한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는 전설적인 디즈니 제국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으로 작품속의 많은 노래들은 개봉즉시 히트를 했다. 그렇지만 소름끼치게 하는 많은 이미지들로 인해 개봉당시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으로는 부적합하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봉즉시 디즈니의 마니아가 되었는데 어른들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미지를 주어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뮤지컬 애니메이션으로 인기를 모았다.

디즈니의 영화에서의 '잔인성, 가학심리, 미학적 통속성' 등은 끊임없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월트 디즈니 자신도 노조 해산과 노조 지도자 해고 등 노동운동 탄압에 앞장선 경영인으로 오명을 받았는데 모두가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자들에 대한 낮은 급료와 처우들로 인해 생긴 갈등들이었다.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은 월트 디즈니의 사후에도 10여년간 끊임없이 사랑을 받았는데 대표작으로 〈피노키오(Pinocchio, 1940)〉〈환타지아(Fantasia, 1940)〉〈아기코끼리 덤보(Dumbo, 19410)〉〈밤비(Bambi, 1942)〉〈신데렐라(Cinderella, 1950)〉〈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 in Wonderland, 1951)〉〈피터팬(Peter Pan, 1953)〉〈레이디 앤 트램프(Lady and the Tramp, 1955)〉〈잠자는 숲속의 미녀(Sleeping Beauty, 1959)〉〈달마시안(One Hundred and One Dalmatians, 1961)〉〈정글북(The Jungle Book, 1967)〉〈아기곰 푸우(The Many Adventures of Winnie the Pooh, 1977)〉 등이 있다.

그 후 1970년대 말에 디즈니 스튜디오는 침체기를 맞이한다. 진부한 내용과 소재로 이미 매너리즘에 빠진 디즈니 스튜디오는 흥행면에서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결국 신흥 애니메이션 왕국 '지브리 스튜디오(Ghibli Studio)'에게 애니메이션 왕좌의 자리를 물려주게 된다. 지브리 스튜디오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대부 미야자키 하야오를 필두로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천공의 섬 라퓨타〉〈이웃집 도토로〉 등으로 디즈니 아성을 무너트렸다. 그렇지만 매너리즘에 빠진 디즈니 스튜디오의 부진은 새로운 경영진이 참여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1989년 야심작 〈인어공주(The Little Mermaid)〉를 시작으로 〈미녀와 야수(Beauty and the Beast, 1991)〉〈알라딘(Aladdin, 1992)〉〈라이온 킹(The Lion King, 1994)〉 등 최고의 작품성과 흥행성을 지닌 뮤지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냈으며 그리고 최근 〈미트 더 로빈슨(Meet the Robinsons, 2007〉 등에 이르기까지 왕년의 디즈니의 명성을 되찾았다. 이들 몇몇 작품은 무대 뮤지컬로 재창조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공연된바 있는 〈미녀와 야수〉는 전 세계에서 히트하여 장기공연을 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공연하고 있는 〈라이온 킹〉은 무대 뮤지컬의 혁명적인 작품으로 아직까지 브로드웨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곳에서 공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년 가까이 장기공연되고 있는데 흥행에는 실패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라이온 킹〉이 어린이들을 위한 뮤지컬로 알려져 있고 배우들의 수준이 떨어지는 면이 있으며 일본 극단이 제작에 참여하여 개막 당시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켜 흥행 면에서 참패를 한 대형 수입 뮤지컬로 기록되고 있다.

월트 디즈니가 만든 또 다른 역작중의 하나는 디즈니랜드이다. 디즈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테마파크 중 하나가 되어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애너하임, 플로리다 주 레이크 부에나 비스타, 프랑스 파리, 일본 지바현, 홍콩 등에서도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건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66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월트 디즈니는 그의 살아생전 가혹한 경영인으로 지탄도 받았었지만 현재까지도 디즈니를 기억하는 어른들과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화신으로 기억되고 있다.

순수예술가들의 종합예술축제 막올라

제3회 포천(마홀)예술제 10월27일부터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포천시지부는 10월27일부터 12월14일까지 제3회 포천(마홀)예술제를 개최한다.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포천시지부(지부장 이희용)는 10월27일부터 12월14일까지 제3회 포천(마홀)예술제를 개최한다.

이번 예술제는 포천국악협회, 포천무용협회, 포천문인협회, 포천미술협회, 포천연극협회 등 예총 산하 5개 단체가 참가한다.

포천국악협회(지부장 송장희)는 10월27일 토요일 오후4시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제6회 국악한마당 공연을 마련해 많은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포천국악협회는 올해로 창립5주년을 맞아 포천메나리 농요팀과 경기소리, 국악실내악, 풀피리 연주, 경기민요, 사물놀이, 서도소리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포천문인협회(지부장 이재옥)는 오는 11월16일부터 18일까지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포천문학 9집 출판기념회 및 시화전을 개최한다. 포천문인협회는 포천문학 발간, 포천사랑 백일장대회, 포천글사랑지 발간, 포천문예대학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포천미술협회(지부장 이경진)는 오는 12월8일부터 14일까지 포천반월아트홀전시장에서 제10회 정기회원전을 개최한다. 포천미술협회는 정기회원전을 비롯해 유명작가 초대전, 포천미술실기대회, 포천현대미술제, 경기미협 회원 초대전 등을 개최하고 있다.

포천무용협회(지부장 한동엽)는 오는 11월16일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협회창립 2주년 기념공연을 개최한다. 포천무용협회는 벨라루시 모길로프시 초청공연, 전국청소년 민속축제 경기도 대표 연출(대통령상 수상), 국제문화교류 우크라이나 공연등을 개최한바 있다.

포천연극협회(지부장 한 대관)는 오는 11월4일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제9회 포천연극제를 개최한다. 포천연극협회는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포천연극제, 포천어린이연극제를 개최하고 땅 끝에 서면 바다가 보인다 등 서민극을 중심으로 다수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예술제를 준비한 포천예총 이희용 지부장은 "포천예술제는 우리만의 예능과 몸짓을 드러내는 순수 종합예술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예술제를 계기로 우리 예술인들은 경쟁력 있는 예술작품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15)

효자 「유회일」과 「안순창」의 지효(至孝)

늙으신 어버이께 십수년 간 병수발을 하고 지극 정성으로 효행을 하였는데 고기반찬을 해 올리지 못 함을 탄식하던 중 하늘의 감응(感應)하심인지 홀연히 꿩 한 마리가 앞마당에 날아들어 와 부모님께 봉양하는 효를 행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 효자 이관하는 가산면에 살았는데 종실(宗室) 의성군(義城君)의 현손이다. 어려서부터 품행이 방정 하여 가난한 살림에도 부모 봉양(父母奉養)에 지극 정성이었다.

밖에서 맛난 음식을 대하게 되면 먹지 않고 갖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드렸다. 십수년 간 아버지가 병석에서 신음하셔도 귀찮아하는 기색 하나도 없이 온화(溫和)한 모습으로 조석(朝夕)을 거르지 않고 받들었으며 명약(名藥)을 구해도 먼저 맛 본 후 드렸으며 복용 후에는 증세를 꼭 챙기는 효를 다 하였다. 하루는 매끼 드시던 고기반찬을 장만치 못 하여 형제가 모여 앉아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치 않았음인지 꿩 한 마리가 앞마당에 날아들어와 떨어졌다.

"옳다 되었다. 하느님의 감응하심이라 몇 날은 고기반찬 걱정 없겠군..."

하면서 홀연히 앞마당에 날아와 떨어진 장기 한 마리를 잡아, 찌고, 볶고 삶는 등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부모님 공양을 하였다 한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고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듣고 천지신명(天地神明)의 감응하심이라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어버이의 병환이 위독해지자 밤중에 목욕재계하고 눈물로 북두칠성님께 빌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환으로 별세하시자 시묘(侍墓)를 하였는데 늘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풍우한설(風雨寒雪)을 가리지 않았다고 한다.

숙종조 42년(1716년) 이관하 효자의 효행이 조정에 알려지자 정려(旌閭)를 세우게 하였으며 급복(給復)을 명받았다 한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첫째, 왕손이라면 위세가 등등하여 고을 원님이나 마을 사람들 알기를 우습게 알던 조선 왕조 시대 인물로 겸손하고 소박하여 청렴하게 살면서 부모님께 효도를 지성으로 하였다는 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둘째, 「지성이면 감천(至誠 感天)」이란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점이다.

청산에 살던 효자 김기병님도 같은 하늘의 감응으로 효성을 다하였다는 얘기는 본란을 통해 소개한바 있다.

요즈음 세태를 보라. TV연속극 속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때리는 장면이 여과 없이 방영되며 국제적 망신을 주지 않나 생각 되여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내 고향 포천의 며느리 모임은 그 수가 늘고 있다한다. 아마도 효자 김기병이나 효자 이관하 같은 효자님들을 본받아서가 아닐까?

필자연락처 02-932-2434

초대 漢詩

鴻雁南飛九月天(홍안남비구월천)

崔宗圭
포천명유회 회장

淸江萬里百雲天(청강만리백운천)
청강만리에 하늘에는 흰 구름이 뜨고

鴻雁驚寒北渚邊(홍안경한북저변)
기러기때 북쪽 물가에서 추위에 놀랫도다.

楓赤飄風深沼外(풍적표풍심소외)
단풍은 붉어서 깊은 못 밖에서 바람에 날리고

菊黃浥露野山前(국황읍로야산전)
황국은 야산 앞에서 이슬에 젖었도다.

飛過寺刹疑尋佛(비과사찰의심불)
사찰을 지나 날아가니 부처님 찾나 의심하고

高頡峰巒似入仙(고힐봉만사입선)
높은 산봉우리 위로 날으니 신선이 되는 것 같구나.

醉裏瓊章容易忘(취리경장용이망)
취중에 경장은 잊어버리기 용이하고

朗吟妙句語難傳(랑음묘구어난전)
묘한 글구 랑영하나 말로는 전하기 어렵도다.